

장수 기업에서 배우는 지속 성장 전략

보통 한 기업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10% 정도이고 10년 간 생존할 확률은 1%라고 한다. 벤처기업의 생존 확률을 일반기업의 1/10 이하라고 본다면 벤처기업이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0.1%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장수 기업에서 배우는 지속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기업의 평균 연령은 32.9세, 코스닥 기업은 16.7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안 된 신생기업의 숫자가 많고, 10~20년 사이 기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30~40년 된 기업까지는 다소 늘어나다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올해 3월이면 창립 13주년을 맞는다. 무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SW산업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해야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실업 시대에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발전해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견고한 토대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식정보강국을 주창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전략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조달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함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범적 거래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이익 중심의 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이 저가 수주의 손실을 증소 벤처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예산을 독립적 항목으로 바꾸고, 전산 담당자의 평가 시스템을 예산 절감 중심에서 생산성 향상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예산이 하드웨어 등 다른 예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한 정부 전산 담당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예산 절감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가 입찰, 덩핑 등의 부작용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예산 기준과 실무자 평가 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런 제반 여건의 조성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인재 육성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하려면 대학 및 학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을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런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때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될 것이다.



안철수 연구소 오석주 대표
장수하는 SW
기업을 키우는 토대